

시제·상부사의 한국어와 태국어 대조연구

한 주 희

Abstract

Han, Ju-hee. 2016. 6. 30.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Thai adverbs in tense and aspect.** *Bilingual Research* 63, 215-238. This thesis is a comparative study of adverbs referring to tense, aspect in Korean and Thai. It aim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nguages, with the emphasis on how certain words or phrases are used to indicate specific time frames of an action in each language. The main reason why Korean and Thai belong to the different language groups.

As a member of Altaic language family, Korean is agglutinative, forming words by adding inflectional endings to the end of a stem to convey grammatical functions. The specific references to a time at which an action happens is therefore indicated by affixes added to verbs. In contrast to Korean, Thai belongs to the Sino-Tibetan language family. It is characterized as an isolating language that uses specific grammatical words, rather than inflection, to express syntactic relations within sentences. Instead of indicating by affixes added to verbs, specifying tenses in Thai is achieved by using such add-on words as time adverbials and auxiliary verbs.

This comparativ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more nuance understanding of language differences and help Thai and Korean learners to be able to choose the right and appropriate way to express tenses, aspects when translating Thai into Korean and vice versa. It is also hoped that this research lead to a more effective method in understanding languag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tense adverb(시제부사), aspect adverb(상부사), comparative study(대조연구), Korean(한국어). Thai(태국어)

1. 서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틀에서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언어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의 시간과 언어적 시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시간이 세계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라면, 언어의 시간은 언어권에 따라 그리고 개별언어 사용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적 시간 인식을 의미하는 문법 범주로 시제와 상을 두고 있다. 시제와 상을 표현하는 수단은 언어권에 따라 어휘와 문법 형태소로 대별되는데 문법 형태소는 각각 시제, 상의 문법 개념으로 어휘는 명사, 부사 등의 어휘 개념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한국어의 시간은 어미, 시간 부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보조 용언 구성의 우연적 형식으로 표현되고, 태국어는 접사¹⁾, 시간 부사로 표현된다. 그런데 한국어와 달리 태국어는 시간 부사만으로도 시제와 상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시간 부사가 문법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중국어처럼 고립어가 가진 특징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범언적으로 부사는 내용어와 기능어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 시간 부사 역시 기능어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한국어에서도 시간 부사는 시제와 상의 문법 형식을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한다. 고립어인 태국어의 특징상 시간 부사의 역할은 시제 또는 상의 문법형식을 대신하는

1) 태국어의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 형식을 어떠한 용어로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굴절접사’라고 한다면 고립어인 태국어의 유형적 분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징상 어미는 문법 형태와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되어 그 수가 많다는 특징을 전제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립어인 태국어는 동사의 전후에 결합하여 쉽게 분리가 되지 않아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를 대신할 용어로 조동사를 사용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접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티벳-버만어는 고립어로서 동사의 전후에 접사가 사용되어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기능까지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은 두 언어가 가지는 언어 유형적 특징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언어 학습자는 이질적인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므로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정재주(2007:16)에 따르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관한 오류 분석의 결과,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항목은 조사, 어말어미, 시제, 어순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시제와 상은 한국어의 경우 태국어와 달리, 시제 표지가 종결형과 전성형이나 연결형의 시제 제약에 의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에 의하거나 시간 부사에 의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시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어려워하는 문법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고립어로 어형이 변하지 않고 단어마다 의미를 가지는 태국어 모어 화자에게 한국어의 다양한 시제 형태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태국어의 시제는 시제 접사, 시간부사, 맥락 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의 대학교에는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1995년에 최초로 송클라대학교²⁾에서 한국어학과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태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열기와 더불어 한국 교육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런데현재 태국의 한국어 교육계에는 시제 선어말어미에 관한 연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도 시제 선어말어미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간 부사가 태국어에서 시제와 상을 대신하는 기능

2) 쭈타맛 분추(2014)에서 재인용. 현재 태국 대학 내에 한국어과가 설립된 대학은 송클라대학교, 부라파대학교, 실라빠견대학교, 씨나카린위롯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 치앙마이랏차팍대학교, 마하사라감대학교 이렇게 7 대학이 있다. 그리고 Office of the Basic Education Commission(태국 기초교육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공립 중·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 과목이 생겼고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24,000명(63 학교)의 학습자를 확보하였다.

을 하는 것을 대조하는 것은 두 언어의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태국어와 한국어에서의 시간 부사만을 정리하여 그 사용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단 부사에 대해 유형론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장에서는 시제와 상으로 분류하여 각 하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사들을 대조해 보도록 할 것이다.

2. 부사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

부사의 종류에 대한 범언어적 차원의 기준과 이들의 기능에 대해 이 장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송재정(2011)은 부사가 단순히 동사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시하면서, Sasse(1993:665)가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 단어로 분류기준으로 범위(scope), 핵어(heads), 의미(meaning)를 들었다.

범위는 부사의 수식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부사(어)가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한국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문장 부사, 성분 부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원문에 충실하게 기술하면, 부사의 수식 범위를 서술(predicate), 사건(event),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화행(speech act)의 층위로 나누는 것이다.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이냐가 핵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부사의 수식 대상을 동사, 형용사, 부사, 심지어 명사까지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의미 기준은 부사 자체의 의미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위치 부사, 시간 부사, 양태 부사’ 등으로 분류됨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Ernst(2002)도 부사를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사건 지향, 주어 지향, 화자 지향 부사, 시간 부사 등으로 나누었다.

부사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는 Cinque(2006)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기능적 핵어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적 핵어로서

양태, 시제, 상, 태를 제시하고, 문장 내에서 문법 형태소에 의한 기능적 핵어와 각각의 부사의 순서가 일치한다는 논의를 펼치며, 부사를 기능적 핵어를 지정어의 위치에 할당하였다. 굴절어인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예를 들어 부사가 기능적 핵어의 지정어임을 통사적으로 증명하고, 이는 범언어적으로 부사어가 가진 기능어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수화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수화에서 어휘정보 (lexical information)는 동사, 명사로 표현되나 문법 정보는 부사로 표현되어 문법 형식의 표현을 대신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의 언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 순서에서도 문법 형식의 습득 순서가 시제, 상, 양태의 순서라면, 부사를 습득하는 순서도 동일한 순서로 습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사가 기능어의 역할을 일정 부분 문법 기능을 하는 것은 거의 정설로 굳어진 듯하다. 특히, 문법 형태소의 발달 정도를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의 순으로 고려해 볼 때 그의 부사의 기능적 핵어론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만일 한국어에서 시간(시제)부사의 기능이 시제 형태소에 의한 시제 지시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기능을 제한한다면 굴절어와 고립어에서는 시간 부사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여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고립어 태국어는 시간 부사의 기능이 교착어의 그것보다 확대되어 있다.

덧붙여 설명한다면, 한국어의 경우 대개 문두에 위치해 문미의 양태 표현과 호응을 하는 양태 부사 ‘결코, 도대체, 모름지기, 아마’ 등은 완전한 내용어라기 보다는 양태의 기능을 하는 기능어라고 볼 수도 있고, 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 못’과 같은 부정부사도 그러하다.

태국어는 시제 형태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부사만으로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반면 한국어의 시간 부사는 단순히 시

제나 상의 의미를 확실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다음 장에서는 시간 부사를 시제와 상으로 나누어 각 용례에 해당하는 양상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3. 한국어와 태국어의 시제 부사

시제는 지시의 한 유형으로 지시적 표현에는 지시 대명사, 지시 관형사, 시간 부사 등이 존재한다. 지시 표현은 문장의 맥락에 따라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는 숙제를 하느라 고생했다’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했느냐는 시간적 지시 다시 말해 시간 부사가 없으므로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시제의 삼분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밀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도 있다. 그 예로 니제르-콩고(Niger-Congo:Tanzania)어 처럼 미래 시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언어가 있는데, 가까운 미래, 중간 미래, 먼 미래의 세밀한 시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상의 원근에 대한 지시 표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티벳-버만(미얀마)(Tibet-Burman:Burma)어에는 시제를 위한 문법 형태소가 없다. 시간 부사들이 양태(modality)접사들과 병기하여 시제를 나타낼 뿐이다. 양태를 나타내는 실재(realis) 접사는 사건이 과거이거나 현재임을 의미하고, 시간 부사는 시간 지시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비실재(irrealis)접사는 미래의 사건을 지시하는 데 사용되고, 다시 시간 부사가 이를 확인한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태국어도 미얀마어와 같은 ‘중국 티벳(Sino-Tibetan)’어족의 한 분파로 고립어(Isolating Language)이다. 동사의 전후에 결합하는 접사가 있기는 하나, 시간 부사만으로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1 과거시제 부사

시제는 사건 발생의 시간적 위치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크게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이나, 특정 시제를 지시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좁혀 시제 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제 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에는로 ‘어제, 오늘’ 처럼 특정 시간을 지시할 수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로 어제와 오늘은 시간 계산상으로 24시간을 의미하므로 특정 시간을 타나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폭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어제, 오늘’은 ‘24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미하는 시제부사는 그 정의에 충실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의 폭이 아닌 사건발생의 시간적 위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시간의 폭’을 의미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자 한다.³⁾

과거 시제 부사의 범주와 관련한 논의 중에 명사와 경계 설정에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부사이면서 그 사용에 따라 명사로도 가능하다. “철수가 학교에 간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다”와 “비가 오늘 많이 왔다”의 두 문장에 사용된 ‘오늘’은 명사와 부사의 기능을 하므로 품사통용이나 전성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제가 연구 대상이므로 부사의 범주로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⁴⁾

만일,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시간 부사가 쓰인다면, 그리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았.’과 공기 가능하다면 과거 시제 부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과거 시제 부사는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 시간 부사가 특정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 다른 시제를 표현하는 문법형태와의 공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의 예에서 보여지듯 ‘어제, 아까, 이미’는 현재 시제의 문법 형태와 공기할 경우 자연스럽게

3) 시제의 체계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하고, 본고에서는 학교문법에 따라 3분체계를 기준으로 전개한다.

4) 이 외에도 ‘오늘, 작년, 내년’ 등과 같이 명사와 부사의 범주를 넘나드는 것들이 있다.

못한 문장이 된다.

- (1) 가. 어제 철수가 시험에서 떨어졌다.
- 가* 어제 철수가 시험에서 떨어진다.
- 나. 아까 철수가 길에서 넘어졌다.
- 나* 아까 철수가 길에서 넘어진다.
- 다. 이미 철수는 숙제를 다 했다.
- 다* 이미 철수가 숙제를 다 한다.

다시 말해 (1)에서 ‘어제, 아까, 이미’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동사 어간에 결합한 ‘떨어진다. 넘어진다. 한다’와는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제, 아까, 이미’는 과거 시제 부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형태인 ‘-았/았-’은 의미상 시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료상을 함의한다. 이는 18쪽 상부사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과정을 거쳐 과거 시제 부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⁵⁾

(2) 과거 시제 부사

어제, 그저께, 접때, 그제, 이미, 벌써,⁶⁾ 아직, 아까 등

한편 태국어의 과거 시제는 접사 단독, 접사와 과거 시제 부사 병기, 과거 시제 부사 단독의 유형으로 표현된다.⁷⁾ 태국어의 접사는 ‘~~๒๑~~/dáj/

5) 이러한 검증은 한주희(2014)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6) 심사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벌써 갈거야?’의 문장처럼 ‘벌써’는 미래시제의 형식과 공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때의 ‘벌써’는 말을 하는 화자가 인식한 ‘예상보다 일찍’의 의미로 인식양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태의 범주에서의 부사 논의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7) 태국어의 예는 태국 나레수안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쭈타맛 분추의 도움을

เคย/khɯ:y/, พี่/phy:ʰŋ/, น้อง/le:ʷ/가 있다. ‘~~พี่~~/dáj/’가 있는데 동사에만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사는 없고, 형용사만으로 과거 시제가 되는데 이는 맥락으로 시제를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사가 사용될 경우에는 부사가 보다 명확히 시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3) ㄱ. ~~น้อง~~พี่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no:ʷŋ dáj ri:an pha:sa:kawli:ʷ/

동생 : 접사 : 배우다 : 한국어

(동생이 한국어를 배웠다.)

ㄴ. ~~พี่~~น้อง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pi:thi:le:ʷ no:ʷŋ dáj ri:an pha:sa:kawli:ʷ/

작년 : 동생 : 접사 : 배우다 : 한국어

(작년에 동생이 한국어를 배웠다.)

ㄷ. ~~พี่~~น้อง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pi:thi:le:ʷ no:ʷŋ dáj ri:an pha:sa:kawli:ʷ/

작년 : 동생 : 배우다 : 접사 : 한국어

(작년에 동생이 한국어를 배웠다.)

ㄹ. 꽃이 아주 예뻐다.

ดอกไม้สวยมาก

/dɔ:kmáj suai ma:k/

꽃 : 예쁘다 : 아주

ㅁ. *ดอกไม้ไม่สวยมาก

/dɔ:kmáj dáj suai ma:k/

받아 작성되었다.

꽃 : 예쁘다 : 아주

ㄴ. 어머니가 선생님이었다.

แม่เคยเป็นคุณครู

/me:ˆ khɯ:y pe?n khunkhru:/

어머니 : 접사 : 이다 : 선생님

ㄷ. แม่เป็นคุณครู

/me:ˆ dáj pe?n khunkhru:/

어머니 : 접사 : 이다 : 선생님

ㄹ. 어제는 꽃이 아주 예뻤다.

เมื่อวานดอกไม้สวยมาก

/mu:áwa:n do:kmáj suai ma:k/

어제 : 꽃 : 예쁘다 : 아주

ㄺ. 지난 여름에는 꽃이 아주 예뻤다.

เมื่อฤดูร้อนปีที่แล้วดอกไม้สวยมาก

/mu:áru:du:rw:ˆn pi:thíle:ˆw do:kmáj suai ma:k/

지난여름 : 꽃 : 예쁘다 : 아주

(3ㄱ)은 접사 단독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한 것이고, (3ㄴ)은 ‘ปีที่แล้ว/pi:thíle/’ 시제 부사 ‘작년’과 접사가 병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3ㄷ)은 과거 시제 부사 단독으로 과거를 표현하는 것인데 고립어인 태국어에서는 부사 단독으로 문법 기능을 하기도 한다.

(3ㄷ)은 형용사가 사용된 예인데 ‘สวย/suai/(예쁘다)’ 앞에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ได้/dáj/’를 표현하면 (3ㄹ)의 비문이 된다. ‘-이다’의 경우는 태국어 ‘เป็น/pe?n/’ 에 해당되는데, ‘เคย/khɯ:y/’가 붙어 과거를 표현한

다. 따라서 형용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시간 부사만으로 과거를 단독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人, 0)에서 사용된 과거 시제 부사의 예로 각각 ‘เมื่อวาน/mu:âwa:n/(어제)’, ‘เมื่อฤดูร้อนปีที่ผ่านมา/mu:ârudu:ro:’n pi:thilɛ:’w/(지난여름)’을 의미한다.

3.2 현재 시제 부사

현재 시제 부사는 ‘지금, 오늘, 요즈음’ 등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를 지시하는 시간 부사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를 지시하는 부사들은 대개 과거를 포함하여 사용된다.

(4) ㄱ. 지금 철수는 밥을 먹는다.

ㄱ' 지금 철수는 밥을 먹었다.

ㄴ. 요즈음 철수는 수영장에 간다.

ㄴ' 요즈음 철수는 수영장에 갔다.

ㄷ. 오늘 철수는 숙제를 한다.

ㄷ' 오늘 철수는 숙제를 했다.

(4)에서 ‘지금, 요즈음’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도 자연스럽게 공기한다. 과거 시제 부사와 달리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를 의미하는 시간 부사들은 대체로 시간의 폭을 함의하는데 그 폭에는 과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미래를 지시하는 ‘-(으)ㄹ 것이다’와도 공기가 가능한데, 이때는 추측의 양태적 의미를 보이거나 미래를 포함하는 시간의 폭을 함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늘 꼭 숙제를 할 것이다/오늘 친구를 만날 것이다’에서 ‘오늘’은 24시간이라는 일정 기간을 나타내므로 0시의 위치에서 12

시는 미래가 되는 것이고 또 9시의 위치에서 17시는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태국어의 현재 시제는 ‘๒๗/yu:’처럼 ‘-ㄴ/는-’ 정도로 대응되는 현재 시제 접사가 사용되거나 특별한 표지 없이 맥락으로 시제를 표시한다. 과거 시제가 동사에 결합하는 접사가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시제에서는 동사도 원형만으로 맥락에 의해서 현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형용사는 원형만으로 현재를 표현하는데 이는 맥락에 의해서 시제를 해석한다. 따라서 부사만으로도 시제를 동사와 형용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 (5) ㄱ. 한국인 선생님들은 한국어로 말한다.

อาจารย์คนเกาหลี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

/ʔa:ca:n khoʔnkawli:˘ phu:d pha:sa:kawli:ʔ/

선생님 : 한국인 : 말하다 : 한국어

- ㄴ. 학생이 지금 책을 읽는다.

ตอนนี้นักเรียนอ่านหนังสืออยู่

/to:nni:˘ naʔkri:an ʔa:nnáʔɯsu: yu:ʔ/

지금 : 학생 : 읽다 : 책 : 접사

- ㄷ.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วันนี้อากาศดีมาก

/waʔnni:˘ ʔa:ka:d di: ma:k/

오늘 : 날씨 : 좋다 : 참

- ㄹ.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다.

แม่เป็นอาจารย์คณิตศาสตร์

/me:˘ peʔn ʔa:ca:n khaʔnidtaʔsa:d/

어머니 : 이다 : 선생님 : 수학

ㄱ. ตอนนี่นักเรียนกำลังอ่านหนังสือ

/to:nni:’ na?kri:an kamla?ŋ ?à:nnǎ?ŋsu:’/

지금 : 학생 : : 읽다 : 책

ㄴ. ตอนนี่นักเรียนกำลังอ่านหนังสืออยู่

/to:nni:’ na?kri:an kamla?ŋ ?à:nnǎ?ŋsu: yu:’/

지금 : 학생 : 접사 : 읽다 : 책 : 접사

3.3 미래 시제 부사

한국어의 미래 시제 부사는 (6)과 같다. 이들은 ‘-겠-, -(으)ㄹ 것이다’가 검증 기준이 되어 미래를 의미하는데, 추측, 가능성과 같은 양태적 의미를 함의하기도 한다. 미래 시제 부사는 내일, 글썽, 모래, 내년, 내후년, 당장, 이따, 이후, 금명, 금후, 이후, 곧, 즉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6) ㄱ. 내일 철수가 서울에 갈 것이다.
- ㄴ. 내일 철수가 서울에 가겠다.
- ㄷ. 영화가 곧 그 일을 해결할 것이다.
- ㄹ. 영화가 곧 그 일을 해결하겠다.

(6)의 ‘내일, 곧’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과 의존 명사 구성인 ‘-(으)ㄹ 것이다’와 공기가 가능 한 것을 보면 이들을 미래 시제 부사라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미래 시제 부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도 공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일 철수가 간다’, ‘영화가 곧 그 일을 해결한다’에서처럼 ‘-ㄴ/는-’과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가까운 미래 또는 예정된 미래를 표현하는 것

이지 단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범언어적으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는 많이 발견된다.

가깝게는 영어에서도 현재 진행이나 단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데 이때는 현재 시제로 보지 않고 미래 시제로 판단한다. 시간 부사가 미래를 지시할 때, 문법 형태가 비록 현재를 지시하는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시간 부사가 나타내는 시제를 우선적으로 의미해석에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보이는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동사 어간에 결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미래로 의미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 부사가 가지는 기능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어의 미래 시제 표현은 접사 ‘จะ/ca?’가 동사에 결합하여 나타낸다. 미래 시제 역시 부사 단독, 혹은 부사와 병기, 미래 시제 접사만으로 시제를 표시한다. 태국어 문장에서 ‘พรุ่งนี้/prûŋni:/ (내일), ปีหน้า/pi:nâ:/ (내년), อาทิตย์หน้า/a:thid nâ:/ (다음 주), เดือนหน้า/du:annâ:/ (다음 달)’ 등과 같은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시간 부사가 나타나면 미래시제 접사 ‘จะ/ca?’는 생략이 가능하다

(7) ㄱ. พรุ่งนี้เขาจะขับรถกลับบ้านเกิด

/prûŋni:’ khaw ca? kla?bro?d kla?b bâ:nkɯ:d/

내일 : 그 : 접사 : 운전하다 : 고향 : 가다

(그는 내일 차를 가지고 고향에 갈 것이다.)

ㄴ. ปีหน้าฉันจะไปเรียนที่ต่างประเทศ

/pi:nâ: cha?n ca? paj ri:an thi:ˆ tà:ŋpra?the:d/

내년 : 나 : 접사 : 가다 : 유학하다 : 해외

(내년에 나는 해외에 유학하러 갈 것이다.)

㉔. พรุ่งนี้เขาขับรถกลับบ้านเกิด

/prûŋni:’ khaw kha?bro?d kla?b bâ:nkɻ:d/

내일 : 그 : 운전하다 : 고향 : 가다

(그는 내일 차를 가지고 고향에 갈 것이다.)

㉕. พรหม ฉันไปเรียนต่อที่ต่างประเทศ

/pi:nâ: cha?n paj ri:antɔ:’ thi:’ tâ:npra?the:d/

내년 : 나 : 가다 : 유학하다 : 해외

(내년에 나는 해외에 유학하러 갈 것이다.)

㉖. อาทิตย์ไหนผลสอบระดั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ออก

/ʔa:thidnâ: pho?n so:b wa?d ra? da?b pha: sa: kaw li:’ ʔɔ:k/

다음 주 : 한국어 능력시험의 결과 : 나오다

(다음 주에 한국어 능력시험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㉗. พรุ่งนี้อากาศตอน

/prûŋni:’ ʔa: ka:d ro:’n/

내일 : 날씨 : 덥다

(내일 날씨가 덥겠어요.)

㉘. เดือนไหนไปเกาหลี

/du:annâ: paj kaw li:’/

다음 달 : 가다 : 한국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거예요.)

예문(7)에서 ‘อาทิตย์ไหน/ʔa:thidnâ:/(다음 주), พรุ่งนี้/prûŋni:’/(내일), เดือนไหน/du:annâ:/(다음 달)’등과 같은 미래를 표현하는 시간 부사에 의하여 미래시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 본 태국어와 한국어의 시간 부사가 시제를 나타내는 양상은 교착어와 고립어의 특징으로 대표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어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부사는 시제를 나타내는 접사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또는 병기되어 시제를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부사는 시제 형태소가 보이는 시간 지시를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한국어와 태국어의 상부사

상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분류체계를 가지나 크게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상의 실현 형태를 기준으로 문법상과 어휘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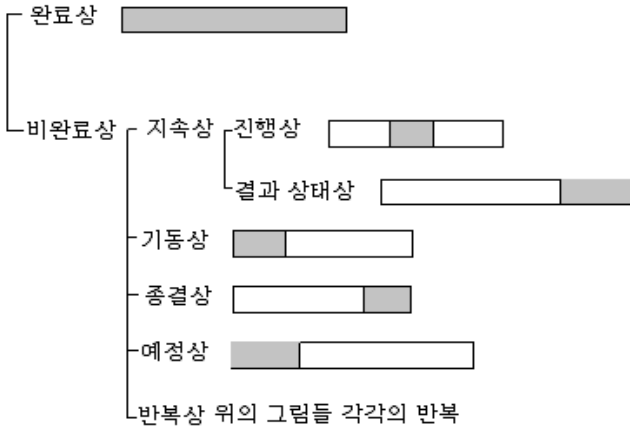
문법상은 사건⁸⁾을 관점으로 문법 형식에 의해 실현된다. 한국어의 문법상 형식으로는 어미, 보조 용언 구성이 있다. 보조 용언 구성으로 문법상을 나타내는 것에는 ‘-아/어 있-, -고 있-’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문장에서 용언과 결합한다. 어미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인 ‘-었/았-’을 생각할 수 있다. 과거 시제의 ‘-었/았-’은 완료상을 함의하는데 과거 시제는 완료된 사건을 사건의 내부구조에 상관 없이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문법상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완료상에는 지속상과 반복상이 있다. 지속상은 진행상과 결과 상태상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기존에 제시한 상의 범주를 종합하여 제시한다면 (8)처럼 정리할 수 있다. (자세한 부류기준은 고영근(2004), 박덕유(1998), 정용구

8) 사건은 명제에 의한 것으로 명제가 표현하는 상을 상황상으로 정의하고 문법상을 관점상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상의 문법 형식으로 상부사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문법상이라고 한다. 한편, 문법상과 대가 되는 것으로 어휘에 의한 어휘상이 있다.

(2005)등을 참조)이들을 종합하여 정용구(2005)가 제시한 가능한 상의 유형을 고려하여 모두 제시하면 (8)과 같다.

(8) 가능한 문법상의 유형⁹⁾



(8)의 완료상은 사건의 내부구조에 관계 없이 사건의 종료에 초점을 두고 한 단위로 인식한 것이며, 비완료상은 사건의 내부나 사건 이전 혹은 이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결과 상대상과 예정상은 각각 사건 이후와 이전에 초점을 둔 것인데 이들은 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전칭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거의, 다, 전부, 모두’가 문장에 실현되고 완료상의 형태에 ‘즈음’이 결합되면 ‘~다 ~어 버릴 즈음이다’처럼 종결상이 되거

9) 완료상을 결과상태 지속으로 보는 학자들의 논의는 구체적인 문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는 깨끗이 청소했다’처럼 ‘청소하다’처럼 완성동사가 사용된 경우에 이 문장의 상이 완료상과 결과 상태 지속상이 되는 것은 동사에 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열심히 달렸다’에서처럼 행위동사에서 는 결과 상태 지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있/었.’이 결과 상태 지속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어휘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논의는 박진호(2011:298)를 참조할 수 있다.

나, 기동상처럼 ‘시작하-’의 어휘의 도움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동상과 마찬가지로 종결상은 부사와 명사의 어휘상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문법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문법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어휘에 의한 도움이 있어야만 실현되는 상은 문법상이라기보다는 어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즉 문법상의 범주를 보조 용언 구성의 우연적 형식이나 어미로 제한하는 것이다. 예정상은 ‘-(으)ㄴ 것이-’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의 양태 기능과 미래 시제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예정상은 상의 범주가 아니라 양태와 시제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었-’이 과거 시제의 기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완료상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본고의 기술상 설명의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시제가 완료상을 함의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논의이며, 범언어적인 현상이므로 예정상의 ‘-(으)을 것이-’와는 별개의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기동상, 종결상, 예정상은 문법상의 유형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어지-, -게 되-’를 기동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의 범주가 아니라 태(voice)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제외한다.¹⁰⁾

한편, 학교문법에서는 상을 뜻하는 고영근(2004)의 동작상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그의 논의에서도 동작상은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동사의 결합에 의해 표시되거나 어미로 표현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동작상을 진행상, 완료상, 예정상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시제의 3분체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의 논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고 있다, -는 중이다, -는 중에 있다, -아/어 가다/오다’는 진행상을 의미하고,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어 지다, -어 두다, -어 놓다, -어 내다, -고야 말다’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또한 ‘-게 되다/하다’는 예정상으로 기능한다.

10) 태와 관련된 논의는 강명순(2000:45)와 남수경(2011: 31)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표현하는 상의 범주가 어휘상과 문법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양태나 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문법상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9)와 같이 관점상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9)문법상 유형

완료상		미완료상		
		지속상		반복상
-었-	-아/어 버리-	진행상	결과 상태상	
		-고 있1-11)	-고 있2- -어 있-	-어 대-, -곤 하

예를 들어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철수는 밥을 먹고 있었고, 영희는 책을 읽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들어갔다’는 내적 시간 구성이 아니라 사건 발생의 시간적 위치가 과거임을 나타내는 과거시제이다. 그러나 ‘먹고 있었다’와 ‘읽고 있었다’는 사건의 내적 모습을 나타내는데, ‘내가 방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건이 진행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 있1-’에 의한 것이다. 즉,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을 갖고 있는 진행상이다. 결국 상은 동사에 의한 사건의 내적 장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시간 구성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면 완료상이고, 여러 국면으로 세분해 그 중 어느 한 국면만을 보여준다면 미완료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완료상은 일시적으로 동작이 계속되는 진행상과 그

11) ‘-고 있-’는 진행상과 결과 상태상의 기능을 하므로 ‘-고 있1-’은 진행상, ‘-고 있2-’는 결과 상태상을 나타낸다.

행위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반복상으로 나뉠 수 있다.

4.1 완료상 부사

완료상 부사는 ‘-있-, -아/어 버리-’와 공기가능 여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데, ‘이미, 벌써’ 등이 있다. 과거 시제 부사는 상 부사와 중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완료’의 상적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 (10) ㄱ. 순희는 벌써 운동장을 달려 버렸다.
 ㄱ' *순희는 자주 운동장을 자주 달려 버렸다.
 ㄴ. 철수는 이미 집을 지어 버렸다.
 ㄴ'* 철수는 종종 집을 지어 버렸다.
 ㄷ. 기차는 이미 도착해 버렸다.
 ㄷ' 기차는 때때로 도착해 버렸다.

(10ㄱ)의 ‘벌써’는 ‘-아/어 버리다’와 공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10ㄱ')의 ‘자주’는 어색하다. (10ㄴ)의 ‘이미’는 가능하나와 (10ㄴ')의 ‘종종’은 어색하다. 그런데 (10ㄷ)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0ㄷ')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이때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이다. (10ㄷ)은 한 대의 기차가 도착했음을 완료하는 것이라면 (10ㄷ')은 여러 대의 기차가 도착한 사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둘의 의미는 같지 않다.

한편, 태국어의 완료상 접사는 ‘^{๕๕}phɯːtʰ/phyːtʰ’인데 시제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 단독으로 완료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한 상 부사에는 ‘^{๕๕}murːákiːtʰ’가 있는데 ‘방금, 금방’ 정도의 의미이다.

(11) ㄱ. *ฉันเพิ่งไปพบเพื่อนมา*

/chaʔn pʰy:ʔŋ pâj poʔb pu:ʔn ma:/

나 : 접사 : 만나러 가다 : 친구

(나는 방금 친구를 만났다.)

ㄴ. *เมื่อฉันเพิ่งไปพบเพื่อนมา*

/mu:ʔki:ʔ chaʔn pâj poʔb pu:ʔn ma:/

방금 : 나 : 접사 : 만나러 가다 : 친구

(나는 방금 전에 친구를 만났다.)

4.2 미완료상 부사

미완료상 부사는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공기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이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곤 하-’와 ‘-고 있-’과 공기가 가능하나 여부를 들 수 있다. 우연적 형식인 ‘미완료상 부사 중에 지속상 부사는 ‘내내, 계속, 동안’과 같은 것들이 있고 ‘-고 있-’과 공기가 가능하다. 한국어의 예를 먼저 살펴 보면 (11)과 같다.

(11) ㄱ. 철수는 내내 달리고 있다.

ㄴ. 철수는 계속 집을 짓고 있다.

ㄷ. 선물이 한 시간 동안 들어 오고 있다.

반복상 부사는 ‘-곤 하-’와 공기가 가능하고 ‘자주, 종종, 때때로’ 등이 있다. 아래 (12)는 그 예이다.

(12) ㄱ. 철수가 자주 밥을 먹곤 한다.

ㄴ. 철수가 종종 집을 짓곤 한다.

ㄷ. 철수가 때때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곤 한다.

한편 태국어의 미완료상 접사는 ‘กำลัง/kamlaŋ/’, ‘กำลัง/kamlaŋ/~อยู่/’가 있는데 ‘-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강조하기 위하여 둘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둘이 함께 사용될 때는 ‘กำลัง/kamlaŋ/’는 동사 앞에, ‘อยู่/’는 뒤에 결합한다. ‘อยู่/’는 현재 시제의 접사로 주로 사용되는데 ‘กำลัง/kamlaŋ/’와 결합하여 미완료상으로 분류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다른 시간 부사와 달리 미완료상 부사 단독으로 미완료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반드시 ‘กำลัง/kamlaŋ/’, ‘กำลัง/kamlaŋ/~อยู่/’가 병기 되어야 한다.

(13) ㄱ. ขวางนี้กำลังหางานทำ

/chuâŋniːˈ kamlaŋ ha: ŋa:ntham/

요즘 : 접사 : 찾다 : 일

(요즘 일을 찾고 있다.)

ㄴ. ตอนนี่แผ่นดิน กำลังไหวอยู่

/to:nniːˈ pheːndin kamlaŋ wàj yuː/

지금 : 지진 일어나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와 태국어의 시간 부사를 시제 부사와 상 부사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범언어적으로 부사는 기능어와 내용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 특히 시간 부사는 기능어적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립어인 태국어의 시간 부사를 한국어와 비교해서 언어 유형론적으로 접근하였다. 한국어의 시간 부사는 교착어인 만

کم 태국어의 시간 부사처럼 단독으로 시제와 상의 기능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과거시제에서 문장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보조적 수단으로 ‘어제, 작년, 옛날’ 등과 같이 과거 시제 부사를 사용해서 표시한다. 그러나 태국어에서는 부사가 사건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시제를 가장 분명하게 표시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태국어 문장에서 시간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과거시제를 의미하는 접사인 ‘๓๑/dáj/, ๓๒/khɯ:y/, ๓๓/phɯ:ʔ, ๓๔/le:w/’ 등이 생략되어도 과거를 표현 할 수 있었다.

현재 시제에서는 태국어가 문장의 맥락에 의하여 시제를 표시하거나 시간 부사만으로도 현재를 나타내므로 동사 뒤에 결합하는 접사인, ‘๓๕/yu:’의 생략이 가능하다. 태국어의 대표적인 미래시제 접사는 ‘๓๖/ca?’인데 이 역시 생략이 가능하며 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상을 의미하는 부사 역시 완료상에서는 부사만으로도 가능한데, 미완료상에서는 ๓๗/kamlaj/, ๓๘/kamlaj...yu:’와 병기해야 미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강명순(2000), 국어의 능격성 논의와 태 해석, <어문연구> 제33권, 어문연구학회. 5쪽-25쪽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권재일(2013), 『세계 언어의 이모저모』, 박이정.
- 남수경(2011),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 박덕유(2007), 『한국어의 상 이해』, 제이앤씨.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제60권, 국어학회. 290쪽-421쪽
- 송재정(2011), 『언어 유형론』, 김기혁 역, 보고서.

- 정재주(2007),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오류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용구(2005), 국어의 상 해석 규칙과 상 자질에 대한 연구, <시학과 언어학> 제10권, 시학과 언어학회. 331쪽~364쪽
- 쭈타맛분추(2014), 『한국어와 태국어 시제 대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주희(2014), 『부사어의 사건구조와 통사구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주희(2014), ‘-이,-히,-게’형 부사어의 사건수식 양상과 의미해석의 중의성, <한글> 305, 한글학회. 199쪽~223쪽
- 한주희(2015), 묘사술어과 결과술어의 통사구조, <한글> 308, 한글학회. 159쪽~191쪽
- Cinque, Guglielmo(2006), Restructuring and Functional Heads, Oxford Uni.Press.
- Croft, William A.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Oxford University
- Givon, Talmy(1976)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Academy Press”
- Dowty, David(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Hale.
- Ernst, Thomas(2002),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sse, H. J.(1993), Syntactic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n:Jacob, J. A. v. Stechow, W. Sternefeld & T. Venemann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 Walter de Gruyter.
- Song Jae jung(2007),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한주희(Han Juhee)

충남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 초빙교수

대전 유성구 대학로 공과대학 공학교육 혁신센터

전화번호: 042-364-1514

전자우편: wsks1@hanmail.net

접수일자: 2016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6월 10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5일